# "유아교육, 임용고시 같이 준비했다… 유보통합, 불공평"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설치계획 현장 납득 못시켜 '졸속처리' 비판**
**일부서 반대 요구 청원까지 진행**

전국교직원노조 유치원위원회 등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보통합 강행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 현장 교사 의견 반영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논의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현장은 졸속 처리를 지적하며 '유보통합 추진 반대'에 나섰다. 유보통합의 본질적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함에도 소통의 부재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본격화된 유보통합에 대한 현장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산하의 보육(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관리체계 통합'과 '유치원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교육현장을 납득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유보통합이라는 대규모 계획임에도 계획과 소통이 충분치 않아 졸속 처리라는 비판도 나온다. 일부는 '유보통합 추진 반대'를 요구하며 청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30년째 공회전 중인 유보통합의 가장 큰 쟁점은 교사 간 격차 해소에 있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증은 취득 과정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보통합 시 원활한 조율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자격 수준 및 양성제도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교사들의 반대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송기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들 간 기본 자격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 입장에서는 차별의식 같은 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원 자격에 있어서는 보육교사들의 자격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시설 기준에 있어서도 서로 기준을 맞춰 나가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필요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시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통합해 놓을 경우,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에 사람이 몰릴 수 있다는 예측이다.

유치원 교사는 최소 유아교육과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학위 소지자이며,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임용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해 설립된 국공립유치원에 임용되는 국가직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학위소지자 외에도 학점은행, 기타 교육원 등을 통해 자격증을 비교적 수월하게 획득할 수 있다.

실제로 유치원 교사들은 유보통합에 앞서 '프라이드'에 대해 언급한다. 서울 소재의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이모씨(27)는 "중·고등학교 임용고시랑 똑같이 준비했는데 1~2년 준비한 몇몇 보육교사랑 동등해진다는 건 불공평하고 말이 안 된다"며 "유치원 교사들은 프라이드가 강하기 때문에 유보통합은 당연히 되지 않을 것으로 여긴 채 다른 부분에 더욱 집중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른 유치원 교사 김모씨(29)는 "보육교사 취득과정이 사라지는 건 너무나도 좋지만 유보통합이 되더라도 어린이집, 유치원의 구분이 나눠질 게 분명해 유치원 업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별다른 기대감이 없다는 의미였다.

완고한 교사들의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적합한 합의점이 필요해 보이지만 교육 당국은 겉핥기식의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제3의 기관을 설립해 교사를 양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명확한 안내가 없었으며, 교원양성기관의 전문대학원 도입에서도 유아교육을 포함하지 않아 지적됐다.

예산 역시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유보통합' 필요 재정이 15조 이상 소요된다고 했지만 2023년 정부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존재하지 않아 현장의 불신을 사고 있다.

게다가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기간을 단 6일만 진행했다. 행정절차법 43조에 의하면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기간 안에는 주말이 포함되며, 전국 대다수 유치원들이 겨울방학이거나 졸업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시기 공문을 시행한 것은 사실상 유치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졸속 처리 의지 표명"이라며 "정답을 정해놓은 채 교사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추진단 운영 방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교육부, 전문대 혁신지원사업 성과 공유

**작년 104개교에 4020억 재정 지원**
**올 특별회계 신설 6220억으로 증액**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2022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확산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각 전문대학의 2022년 혁신지원사업 운영 성과(교육 혁신·산학협력 혁신·기타 혁신)를 공유·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각 전문대학의 특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사업비를 받은 전문대 104개교에 4020억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했다.

올해는 현장의 수요와 만족도를 고려해 12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하면서 예산이 6220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사업비를 받은 전문대 104개교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44개교를 소개해 타 학교가 발전 계획 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첫날인 17일에는 주제 발표와 함께 18개 대학이 각각 6개교씩 ▲교육혁신 ▲산학협력 ▲글로벌, 평생직업교육강화, 지역사회 연계·협력 등에 대해 대학 혁신 사례를 소개한다.

다음날인 18일에는 교육혁신 16개교, 산학협력 혁신 1개교, 사회적 가치 분야 혁신 9개교 등 총 26개교가 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대학 실무자인 권역별 사업단장 간담회를 통해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도 가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 자리에는 전문대 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실무자를 비롯해 교육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그간 전문대학은 가장 대표적인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인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산업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전문기술 인재 양성 및 학생들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향후에도 전문대학이 교육 혁신 성과를 높여 학생들의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 세종대, 예비·초기 창업자 역량강화 나서

**20일까지 '동계 창업캠프' 참가 접수**

세종대학교 창업지원단은 '2022 동계 창업캠프'를 31일부터 2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캠프는 예비, 초기 창업자들의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양AI센터 3층 콜라보랩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전담 멘토 1명이 3~4팀의 맡아 집중적인 창업 멘토링을 진행한다.

1일 차와 2일 차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창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전문가 강의 및 멘토링을 통해 다룬다. 1일 차에는 아이스브레이킹 및 팀 빌딩을 시작으로, '창업 아이템 가치의 중요성', '아이디어 발상 및 구체화'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2일 차에는 '발표 자료 제작 방법' 및 '효과적인 스피칭 방법' 강의가 열리며, 이후 팀별 아이디어 고도화 및 사업계획서 작성 멘토링이 이어진다. 3일 차에는 팀별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시상식을 진행한다.

3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발표심사는 팀당 5분 발표, 5분 질의응답으로 평가된다.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6팀을 선정해 총 48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신하은 기자

삼육대 '신입생 MVP 캠프'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삼육대

# 삼육대, 예비신입생 MVP캠프 개최

**신입생 500명 1박2일 교내 합숙**

삼육대학교는 16일부터 19일까지 교내 일원에서 '신입생 MVP 캠프'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MVP 캠프는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인교육 프로그램이다. 미션(Mission), 비전(Vision), 열정(Passion)을 지닌 MVP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0년 시작돼 14년째를 맞았다. 올해 MVP 캠프는 신입생 5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2회차(1차 16~17일, 2차 18~19일)로 나눠 1박 2일간 교내 합숙으로 운영됐다.

캠프 총주제는 '삼육의 마법사'다. 프랭크 바움의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허리케인을 타고 '삼육의 나라'로 오게 된 신입생들은 동기 혹은 선배들과 함께 1박 2일간 교내에서 다양한 모험을 하며 두뇌, 심장, 용기를 얻게 된다.

캠프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레크리에이션 '토토야 산책가자' ▲공동체 활동 '도로시와 함께 떠나는 모험' ▲소그룹 활동 'SSAP인싸자' 등이 진행된다. ▲동아리 공연 무대 '양철나무꾼의 일탈' ▲선배와의 대화 '척척학사 허수아비' 시간도 마련됐다.

김일목 총장은 "MVP 캠프는 신입생 여러분을 미션(Mission), 비전(Vision), 열정(Passion)을 가진 MVP 인재로 키워주고 세워주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함께 꿈을 만들어 나가는 4년이 되길 기대한다.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부모 배경 따른 학력 격차 심화…학교 교육 강화해야"
▲설 명절 교통사고·주택화재 빈번…연휴 전날 최다 /사진 뉴시스

▲'1심 징역 35년' 오스템 재무팀장·검찰 쌍방 항소
▲서울시, '촛불연대' 경찰 수사의뢰…국보법 위반 혐의

▲이태원 유족 "국정조사 한계 보완하는 독립적 진상조사 이뤄져야" /사진 뉴시스
▲국교위, 실무기구 구성 착수…'중장기 교육계획' 자문